

추워진 날씨에 겨울옷 '불티'...유통가 '가을 실종'

광주신세계, 일부 패딩 품질...모피·여성 부츠 할인전 등 다양 롯데백화점 광주점, 30일까지 아우터 특별전...등산용품 할인도

아침저녁 기온이 10도를 밑도는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10월에 겨울옷을 찾는 고객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12일(수)광주신세계에 따르면 이달 9~11일 사흘간 야외 의류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0% 뛰었다.

같은 기간 스포츠 의류 매출도 75% 증가하고, 골프의류·용품도 51% 늘며 '두 자릿수' 증가율을 나타냈다.

겨울옷으로 진열대를 채우고 있는 광주신세계

의류 판매장들의 겨울 외투 입고는 평년 대비 90% 완료한 상태다.

10월 옷장만의 인기는 '한겨울 차림'으로 통하는 패딩 의류 성장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주신세계가 본관 지하 1층 스페셜스테이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푸마 창고 대공개전'에서는 패딩 일부 제품은 없어서 못 팔 정도로 완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16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에서는 행사 상품을 최대 70% 할인 판매한다.

광주신세계는 오는 14일부터 20일까지 '모피인

기 상품전'을 열며 겨울 의류 고객 수요 잡기에 나선다. 이 기간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열리는 판매전에 '진도' '동우' '박성룡' 브랜드 등이 참여하며 최대 50~70% 할인율이 적용된다.

이외 18일부터 23일까지 '보브' '지켓' '툼보이' 'SI' 등은 의류 상품을 30~40% 저렴한 가격에 내놓는다. 같은 기간 풀햄은 지하 1층 스페셜스테이지에서 외투 이월 상품을 40~5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찬바람에 발목을 따뜻하게 해 줄 여성용 발목부츠와 남성용 구두는 오는 16일까지 본관 1층 행사장에서 최대 20~30% 할인 판매한다.

이 행사장에서는 '텐다·스타카도·벨리노 가을 슈즈 특집전'과 '소다 구두 인기상품전'이 진행된다.

광주신세계 3층에 입점한 '슈룸바노니' 매장은 가죽과 뜨개질 옷감 등으로 만든 다양한 부츠 신상품을 내놓았다.

롯데백화점은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아우터 특별전'을 벌이며 14~16일에는 외투 상품을 구매할 때 금액대별로 최대 10% 상당 롯데상품권을 증정한다. 행사 카드로 결제하면 10% 할인율이 적용된다.

롯데아울렛은 오는 23일까지 '포레스트 캠프'를 주제로 야외 의류와 등산용품 등을 최대 80% 할인된 가격에 선보인다. 행사 기간 매 주말에는 제휴 카드로 구매하면 구매 금액의 3% 상당을 롯데상품권으로 돌려준다. 같은 기간 롯데백화점 모바일 앱에서는 경품 행사에 응모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와인 '주주(宙酒)총회' 연다 이마트 19일까지 최대 70% 할인

유통업체가 13일부터 하반기 와인 할인 행사에 들어간다.

이마트는 사전 기획과 대량 매입으로 해외 판매가보다 저렴한 와인을 대거 선보이고, 롯데마트는 20~30세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위스키와 증류식 소주 등으로 행사 주종을 확대했다.

이마트는 13~19일 1000여 종의 와인을 최대 70% 할인한다고 12일 밝혔다.

상반기 행사 때는 1600여종을 선보였지만, 하반기에는 고객들이 많이 찾는 1000여 종으로 구성을 줄이고 할인 폭은 키웠다.

롯데마트는 13~26일 '주주(宙酒)총회'라는 주제로 600여종의 와인인 위스키, 증류식 소주, 막걸리 등을 할인한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직접 써보고 향긋한 커피까지... '체험형 매장' 전성시대

롯데백 광주점, 전국 최초 '세라젼 메타포레스트' 운영

상품을 써보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형 판촉이 인기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백화점에서는 처음으로 광주점에 안마기기 전문 매장 '세라젼 메타포레스트'를 12일부터 운영한다고 이날 밝혔다.

이곳에서는 오감을 만족하게 하면서 안마기기를 체험할 수 있는 점이 특징으로 꼽힌다.

이 매장은 '프라이빗(별도) 기기 체험 공간'과 전시 공간(쇼룸), 카페 등으로 구성됐다.

방문객이 숲속에서 마사지를 받는 분위기를 자아낼 수 있도록 이 공간에서만 나는 '나이트-폴우드'(Night-fall Wood) 향도 만들었다.

롯데백화점과 세라젼이 건강 차 등으로 구성해 함께 만든 '동백꽃 한상차림'도 카페에서 즐길 수 있다.

'세라젼 메타포레스트'는 백화점 매장 가운데 처음으로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임대 서비스를 운영한다.

제휴 카드 할인, 장기 무이자 결제, 기기별 결합 혜택 등을 준다. 입차 고객에게는 입차료 3개월 면제 혜택이 주어진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입점을 기념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행사 음료를 50% 할인한 가격에 판매한다. 이달 말까지 '마스터 기기' 구매 고객에게는 롯데상품권 15만원권과 3년 무상 수리 혜택이 제공된다.

이동형 롯데백화점 건강 부문장은 "세라젼 메타포레스트 매장을 시작으로 건강 가전을 찾는 고객들에게 단순 제품 구매를 넘어 다양한 체험과 오감 만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점차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마트24는 '헬스데이' (10월31일)를 앞두고 모바일 앱을 활용한 체험형 판촉에 나선다. 이



12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롯데백화점 광주점에 문 연 '세라젼 메타포레스트' 매장에서 방문객이 건강 가전을 체험해보고 있다. <롯데백화점 제공>

마트24는 MZ 고객을 겨냥해 모바일 앱 '점심'과 손잡고 자신의 성향을 찾는 'MBTI 검사' 서비스를 선보인다.

롯데마트 맥스 상무점에 들어선 와인 전문 매장 '보틀벙커'는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잔으로 시용

할 수 있는 '유료 와인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용 모바일 앱을 출시해 '금주의 테이스팅 탭 리스트'를 공개하며 고객 호응을 끌어내고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위니아, 김장시즌 맞이 '담채' 테마 기획전

롯데하이마트서 신모델 구매시 할인·김치쿠폰 증정 등 혜택 다양

위니아는 본격적인 김치냉장고 시즌을 맞아 롯데하이마트와 함께 10월 '담채' 테마 기획전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담채 1000만대 생산 돌파를 기념해 이달 한 달간 2023년형 담채 스탠드형 4룸을 구매하면 절임배추 20kg과 위니아미 눈마사지기, 글라스락 13세트를 증정한다. 스탠드형 3룸 구매 시에는 절임배추 20kg과 글라스락 9개 세트를 증정한다.

또 롯데하이마트에서 김치냉장고 구매 이력이 없는 고객에 한해 오는 17일까지 2023년형 신모델을 구매하면 최대 30만원 할인 쿠폰과 담채 식품에서 생산하는 건강담은 김치를 교환할 수 있는 김치쿠폰을 추가 증정한다. 해당 고객에게는 별도 안내 문자(LMS)가 발송될 예정이다.

이어 10월 매주 금·월요일 '김치냉장고 담채 단독 금액대별 행사'를 통해 제품 모델과 연식에 상관없이 구매 금액에 따라 상품권을 지급한다. 300만원 이상의 담채를 구매하게 되면 최대 15만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21~24일에는 '김장물가 다운(Down)' 기획전을 통해 담채 신제품 400ℓ 이상 하이마트 단독모델을 구매하면 롯데마트 상품권 5만원을 지급하며, 26일부터 2주간 2022년형을 포함한 구형 모델 대상 수량한정 초특가 행사인 '롯데세븐' 기획전도 운영한다.

위니아 관계자는 "담채 1000만대 생산 돌파를 기념하고 고객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다채로운 행사를 기획 및 운영하고 있다"며 "김장을 준비하거나 김치냉장고를 구매하려는 고객께서는 담채 테마 기획전을 통해 다양한 혜택을 챙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기용 기자 pbxer@kwangju.co.kr

엄마, 보고 싶어요

음주운전!
당신 자녀의 미래가 사라집니다.

만취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 최고 무기징역!

2018년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음주운전 적발 및 사고 시 처벌 수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